

제 3 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개최에 즈음해 다시 한번 민주주의에 대한 일본의 흔들림 없는 결의를 표명합니다.

일본은 민주주의를 포함한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그간 표명한 코미트먼트를 착실히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첫째, '더욱 투명한 정부'를 위해, 투명성이 높은 정부개발원조의 실시와 각국의 법령·사법 제도의 정비·인재 육성 지원 등을 착실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더욱 굳건한 민주주의'를 위해, 각국에 민주적인 선거를 위한 능력 강화 지원 및 기자재 공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의 총선거에 선거감시단을 파견하는 한편, 캄보디아의 여야 소장파 정치인을 초대했습니다.

셋째, '비즈니스와 인권' 분야에서는 업종횡단적인 기업용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공공조달에 있어 인권 배려에 관한 정부 방침을 결정하는 한편, 해외를 포함한 일본 기업의 공급망에서도 인권 존중의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 및 여아의 임파워먼트(empowerment) 달성을 위한 세계적인 노력을 주도하고 젠더 주류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정착은 하루아침에 이룰 수 없지만, 이러한 노력은 인간의 존엄이 지켜지고 평화롭고 안정되며 번영된 사회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차세대를 짊어질 어린이와 청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불가결합니다.

일본은 '어린이 중심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어린이·청년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권리를 보장하며 그들의 현재와 미래에도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그 시점을 존중하며 그 의견을 듣고 대화하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또, 어린이 그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세계 각지에서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는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학교에 다니며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